로컬플러스

군산경찰, 대형교통사고예방 단속

최근 관광버스 사고로 인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군산경찰서는 7일 관광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한 교통안전 합동점검 및 교통사망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경부고속도로에서 4명이 사망,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관광버스 교통사고가 정원초과 등 버스운전기사의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관광버스 등 대형버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형버스의 정원초과, 주행 중 음주가무행위 등에 대한 점검 단속과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군산시희망복지지원단은 갑자기 이달부터 동절기 대비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운용을 강화한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와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 기간 중 사회복지공무원을 비롯해 이·통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방문형 서비스기관 등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단과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중점 발굴할 방침이다.

중점 대상인 보험료 체납자, 단전·단수가구, 최근 복지급여 탈락가구 등 대상자 발굴을 통해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기초생활보장제도, 민간후원 등 공공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조촌작은도서관, 재개관

군산시는 조촌작은도서관이 내달 1일부터 재개관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조촌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 강당 증축공사에 따라 도서관은 임시휴관에 들어갔으나, 이번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재개관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독서·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조촌작은도서관은 매주 화~금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하게 되며,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청년일자리 창출 국회 통과 유도 위한 웹툰 홍보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3일 '공인탐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탐정업 도입 주요 논거는 '청년일자리 창출'임에 따라 당사자인 청년들의 관심 유도가 용이한 콘테츠(웹툰)를 홍보 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포털사이트 NAVER에 연재중인 '생활의 참견'의 작가 김양수에게 의뢰하여 재미있는 내용의 만화형식으로 제작한 웹툰을 전단지로 만들어 홍보에 적극 활용 하였다.

OECD국가 34개국 중 우리나라의 사설탐정업만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로 공인탐정법이 통과되어 자격시험과 지도·감독을 통해 합법적인 탐정직업이 운영되어 국가가 개입하기 힘든 개인권익 영역을 탐정이 해결해 주고 경찰도 민생치안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가와 개인 모두 WIN-WIN 할 수 있게 된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은파순환도로

스텔스 자전거 사고 위험 높아

라이더들 증가로 보행자 차량 운전자들 각별한 주의 요구

군산시민에게 산책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은파순환도로가 일명 '스텔스 자전거'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은파순환도로는 호수를 끼고도는 수려한 경관으로 군산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이곳에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들이 증가하면서 산책을 즐기려는 보행자 또는 자동차와 부딪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연출되고 있다.

이곳 도로는 차량 통행을 위한 왕복 2차선과 보행자가 거니는 약 2미터의 인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로 갓길과 자전거도로는 없다.

이러한 실정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라이더들은 인도의 보행자를 피해차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빈번해 자칫 충돌 위험이 크다.더욱이 호수를 끼고 도는 순환도로의 특성상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아 운전자들은 라이더를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불쑥 나타난 라이더에 놀라 급제동을 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고, 때로는 자전거를 스쳐지나가듯 아슬아슬한 장면이 자주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일부 라이더들은 야간에 전조등이나 후미등도 없이 어둠속에서 라이딩을 즐기면서 산책중인 보행자와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른바 '스텔스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전조등 없이 달리는 자전거는 바로 앞에 있어도 제대로 안 보여 산책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들은 깜짝 놀라기 일쑤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경우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단속도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법적 단속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 '스텔스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자전거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필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룡동에 거주하는 김경순(45·여)씨는 "출퇴근길에 은파순환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불쑥 나타난 자전거 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을 여러번 겪었다"면서 "최소한 야광등이라도 설치하고 되도록 수변로에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야간 자전거 교통사고는 한해 30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자전거 야간 교통사고는 주간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자전거 활성화 시책

자전거보험 2011년 이후 678명 10억200만원 보험 수혜

군산시가 2010년부터 도내 최초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678명이 10억200만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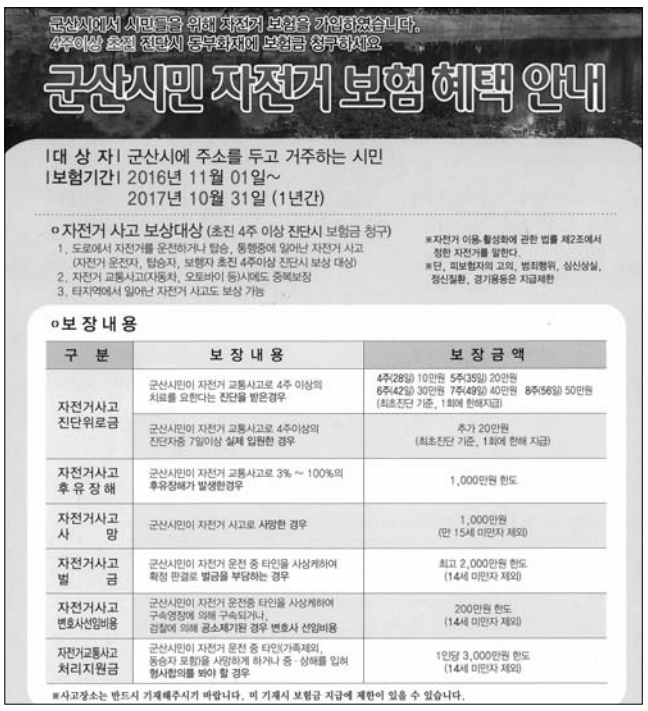
보상기준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운전자, 탑승자, 보행자 포함) 4주 이상의 초진 진단(자전거 사고 명시)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 차량이나 오토바이 등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사고 시에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군산시 외 타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행사나 산길 등 임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원, 사망시 최고 1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되며,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고 3000만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 14세 미만자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는 동부화재(1899-7751)로 신청하면 되며, 청구서류(청구서 다운로드 http://bike.gunsan.go.kr)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FAX 0505-137-0051)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063-454-3632)로 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 현판식

맞춤형복지 시작

군산시 수송동(동장 김종진)이 7일 행정복지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맞춤형복지'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현판식은 군산시의회 의원, 자생단체장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복지기능을 강화시킨 행정복지센터 출범의 순항을 기원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복지는 읍면동이 민간부문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맞춤형 복지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가정방문 상담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수송동은 지난 4월부터 복지허브화를 위한 전담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월 2회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복지 SOS 우체통 설치, 통장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복지통장증 발급으로 관공서 방문을 꺼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종진 수송동장은 "민·관 협력으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송동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전국 1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복지허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사각지대 발굴 및 수혜자 만족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거둠에 따라 2016년에는 군산시 수송동을 포함, 전국 624개 읍면동으로 사업을 확산시켰다.

/군산=문정곤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군산시민 10000여명 시국선언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군산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41개 시민사회단체와 10320명의 시민들은 7일 오전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시국선언을 통해 "군산시민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국정농단에 분노한다"며 "1000여명의 시민들은 자발적인 선언운동에 참여해 국정농단의 실체인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하고 최순실과 그 측근에게 모두 넘겨 주었으며,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서 보여주었듯이 최순실은 박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로 진행된 권력형 비리이며 국정농단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공범들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소라산 자연마당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환경부장관상

익산시 소라산 자연마당이 환경부와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일 익산시는 밝혔다.

소라산 자연마당은 '숲이 내려놓은 4.2℃'라는 주제로 전국에서 출품된 45개 작품 중 최고의 상인 대상에 선정됐으며 3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소라산 자연마당은 방치돼 있던 나대지와 소나무림에 생태숲 복원을 통하여 도심과 산림, 습지가 연결된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해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태전시관, 생태학습마당, 생태놀이터, 습지(물장군 서식지)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공간으로 많이 찾고 있으며 아이들의 생태학습 체험장으로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상에는 자연마당의 지리적 여건과 컨셉의 우수성은 물론 환경과 생태복원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정헌율 시장은 취임이후 소라산 자연마당의 물장군 방사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챙기는 등 환경과 생태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왔다. 이러한 익산시의 노력이 환경부와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수상으로 소라산 자연마당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연마당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6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서울 가든파이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식

군산시가 7일 시청 광장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인증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사무총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정회상 군산시어린이행복도시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등을 비롯해 500여명의 어린이와 시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인증식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축하 메시지와 인증서 전달, 현판 제막, 행복한 우리 군산 노래 합창, 힐링허그 사감댄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MC의 사회로 진행됐다.

특히 힐링허그 사감댄스는 참석자 모두가 서로를 안아주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꿈과 희망의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는 아이들의 소망을 적은 종이를 희망풍선에 묶어 날리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대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군산시의 시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그동안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군산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개한 다양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어린이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앞으로 어린이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인 아동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를 말하며, 군산시는 지난달 18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결산보고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가 2016년도 제198회 임시회 개회중「2016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고 연초 보고한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연식)의 업무보고 요약은 다음과 같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식품클러스트 기업유치사업에 있어서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공기단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는바 공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용의 완성도가 더 중요하므로 시행사에 제대로 된 준공을 하도록 협력하여 우리시가 식품의 메카로 부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화축제 개선도 요구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축제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자고 제안했다.

지금보다는 더 미래를 보고 다른 지역의 국화축제보다 경쟁력이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토록 당부했다.

또한, 익산에 수목원을 만들어 우리 자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익산의 관광명소로도 자리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건위는 FTA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농업분야도 생산중심에서 소득중심으로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현재 FTA대응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모두 만족하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에게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